

20강 - 스포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 학습목표

학교안전사고 중 스포츠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사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숙지한다.

■ 학습내용

학교의 안전사고의 발생 중 체육부학생이나 체육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이나 전·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교원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핵심용어(용어사전)

* 안전 : 위험이 없는 것으로 위험의 가능성 혹은 사고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인간 행동에서 발생하는 용태 또는 위험의 발생을 없애고, 사고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태

* 사고 : 인간을 사망 또는 손상케 한다거나 재산에 손실을 주는 등의 예측하지 못한 사건

* 학교안전 :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고예방 능력을 배양하는 ‘안전교육’과 학교안전을 유지하고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역점을 두는 ‘안전관리’, 그리고 사고발생시 그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고처리’를 포함하는 세 영역별 기능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유지되는 학교단위의 안전 활동 체제.

* 학교 안전사고 : 교육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학생이나 교원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의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및 교원의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고

■ 사례 :

<사건의 개요>

T시가 설치·운영하는 K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008. 4. 24. 경 체육시간 중 운동장 두세 바퀴를 돌고 난 뒤 체조 준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밀검사를 받아 본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으로 판정받았고, 2008. 4. 29. 위 병증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시켰다.

체육교사인 B가 체육수업 시작 전 몸이 아픈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학생을 달리기 등에서 열외 시켰는데, A는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된 이후 B의 위 말에 따라 준비운동으로 실시하는 달리기에서 열외 하여 왔으나, 2008. 5. 11. 체육시간에서 달리기에서 열외하지 않고 운동장을 두 바퀴 정도 달렸는데, 그 중간에 대열에서 이탈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다.

B는 곧바로 A를 양호실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양호교사가 A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사고 직후 연락을 받은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A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에 이르렀다.

이에 A 및 A의 부모는 체육교사 B 및 T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 및 A의 부모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의 범위 및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체육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배제시켜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즉, 비후성 심근병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진 상태를 말하여 비대칭적으로 심중격이 비후되어 있거나 좌심실 벽 전체 또는 심첨부에서만 비후되어 있는 다양한 유형 등이 있는데, 호흡곤란, 협심증, 졸도 등을 보일 수 있고, 부정맥을 일으켜 급사할 수 있는바, 급사의 원인은 대개 심장의 리듬이 갑자기 바뀌면서 심방세동으로 되어 혈압이 떨어지거나 서맥이나 또는 심실 빈맥으로 갑자기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에 이르렀고, 그에 이른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이 사건 달리기 운동 이외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었던 점, 비후성 심근병증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 질병을 가진 사람은 호흡곤란, 협심증, 졸도 등을 보일 수 있고, 부정맥을 일으켜 급사할 수 있는 점, 비후성 심근병증이 판명된 계기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달리기로 인한 졸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달리기 운동에 참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달리기 운동에 참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달리기 운동이 심폐기능에 부담을 주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가해 사지부전마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A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비후성 심근병증의 기질적인 소인이 있어서 이 사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쉽게 일으킨 점이 인정되고, 이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A 및 A의 부모의 청구는 타당하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 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달리기는 체육수업의 일부였으므로, 체육교사는 체육수업 중 실시된 달리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위 A는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판명되어 요양호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체육교사의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체육교사 B는 위 A에게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A를 배제시켜야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체육교사인 B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A를 비롯한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A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본 학습>

1. 체육활동과 학교안전사고

가. 학교의 안전사고는 학생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체육수업의 경우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체육수업에서 신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나. 체육 수업 중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학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체육시간중의 사고를 운동종목별 원인과 상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기운동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육상경기가 그 다음에는 체조경기, 투기운동 순으로 나타났다.

각 운동종목별로 사고 상황을 보면, 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리기, 농구, 뽀름, 철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골절(팔,다리), 상해, 치아손상, 열상, 관절 염좌, 안면부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다. 체육수업시간에 발생한 사고

일선학교에서 체육수업시간에 학교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의 부주의 때문, 안전교육의 불충분하기 때문, 안전하지 못한 학교시설 때문이며, 운동장 체육수업은 교육 과정 자체의 위험성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라. 학생사고는 교육의 활동과정에서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정규의 체육수업시간에는 일반 정규 교과수업시간과는 달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체육 수업은 육체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체육수업은 수업 내용에 따라서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강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격한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때로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어른들과 비교하여 위험 발생에 대한 지각능력이나 변식능력이 떨어지므로 위험발생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지만 사춘기에 해당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혈기왕성한 성장기에 있고, 심리적으로는 반항기에 있어서 자신들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육과 관련된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학교와 교사의 주의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체육활동과 관련한 판례의 분석

가.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 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서, 고등학교(공립)운동장의 야구 백네트 주위에서 야구코치 없이 야구연습을 하고 있던 야구부원이 같은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대학입시체력장을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양편으로 갈라서서 공 던지기 연습을 하던 같은 학교 3학년에 끼어들어 공을 던져 반대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위 야구부원을 지도 감독하는 야구코치와 위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교사에게는 야구부원에게 미리 운동장에서 위 학생들의 연습 조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하여 위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야구코치로서 그의 지도를 받는 야구부원에게 미리 운동장에서 체력장 연습을 하는 학생대 열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야구코치의 과실과, 체육교사로서, 야구코치와 사전협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위 공 던지기 연습조 부근에 있던 야구부원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는 등 하여 사고의 발생을 막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나. 3단 넓이 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로서,

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교육 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다가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체육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3단 넓이뛰기에 관하여 충분한 연습을 시키지 아니한 채 시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3차례나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뒤로 넘어져 실격을 당하였으면 위험을 예견하여 위 마지막 시도 때 착지지점의 모래상태를 점검하거나 학생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착지지점 근처에 보조인을 배치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험을 계속 실시한 잘못과 위 학교 설치운영자인 학교의 넓이뛰기 장소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로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마. 체육시간에 달리기 수업을 받던 중 배구 지주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1학년에 재학중 체육시간에 달리기 수업을 받던 중 배구 지주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례에서, 학교가 위치한 곳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학교용지가 좁아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좁은 운동장 내에 배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기 코스는 곡선거리 100m 트랙이 원형으로, 직선거리 50m 트랙이 직선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구성되어 있어 체육시설물 간 간격이 협소하였으며 배구 지주대는 50m달리기 트랙 결승점 부근 3.8m 정도 못 미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지주대 상단 150 높이의 네트걸이 손잡이가 달리기 진행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항상 학생들이 다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준비운동 후 바로 50m달리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달리기 우측 트랙 출발선에서 약 1m 정도 앞선 지점에서 출발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학생은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 최대 속도로 달리다 자신의 트랙을 이탈하였으나 체육교사는 출발선 바로 앞쪽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을 지휘하느라 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학교는 지리적 특성상 좁은 운동장을 전교생이 사용하면서 좁은 운동장 내에 배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달리기 트랙 등 각종 운동시설을 비좁게 설치하여 특히 체육시간 중에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학생은 중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체육시간에 50m달리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담당교사로서는 최소한 학교 운동장에 배치된 운동기구들의 위치와 충돌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특히 50m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달리기 트랙 가까이에 배구지주대가 세워져 있으니 코스를 이탈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학생들은 이와 같이 달리기 트랙 도착지점 부근에 배구지주대가 서 있어 이를 불안해하며 우측 트랙으로는 달리기를 꺼려했으므로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담당교사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곳에서 달리기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더구나 위 배구 지주대 상단에 달리기 트랙 방향으로 돌출된 네트걸이의 손잡이는 충돌 시 중상해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손잡이 부분을 스펀지 등으로 감싸 완충장치를 하거나 이동식 지주대로 교체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학생들의 달리기를 감독할 때는 출발 지점, 도착지점을 모두 감독할 수 있도록 달리기 트랙의 중간을 넘어선 지점에서 학생들을 지휘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점 바로 앞에서 학생들을 지휘하는 바람에 학생이 위험한 상황

에 빠진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육 중에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사들을 지휘감독하고 물적 시설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1000미터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심폐정지로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안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1000미터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심폐정지로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사고 당시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으며,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도록 하여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별도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정리하기

정규의 체육수업시간에는 일반 정규 교과수업시간과는 달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체육 수업은 육체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신체를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체육수업은 수업 내용에 따라서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강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과격한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기도 하며, 때로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어른들과 비교하여 위험 발생에 대한 지각능력이나 변식능력이 떨어지므로 위험발생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지만 사춘기에 해당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혈기왕성한 성장기에 있고, 심리적으로는 반항기에 있어서 자신들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육과 관련된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학교와 교사의 주의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평가하기

문제 1. 체육 수업 중 학교안전사고의 운동종목별 원인과 상해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기운동이 가장 많았다.

- (2) 구기운동 다음으로 육상경기가 많았다.
- (3)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를 유형별로 골절(팔, 다리)이 가장 많았다.
- (4) 운동종목별로 사고 상황을 보면, 농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리기, 농구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해설 : 정답 (4)

각 운동종목별로 사고 상황을 보면, 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달리기, 농구, 뽀름, 철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2. 체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 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2) 고등학교(공립)운동장의 야구 백네트 주위에서 야구코치 없이 야구연습을 하고 있던 야구부원이 같은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대학입시체력장을 대비하여 조를 편성하여 양편으로 갈라서서 공 던지기 연습을 하던 같은 학교 3학년에 끼어들어 공을 던져 반대편 학생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면 위 야구부원을 지도 감독하는 야구코치와 위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교사에게는 야구 부원에게 미리 운동장에서 위 학생들의 연습 조에 끼어들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하여 위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3)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4) 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의 완비, 교사의 배치, 인적·물적 시설의 관리, 근무조건의 정비 등 교육외적 환경을 구비함은 물론 적어도 정규 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안전보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설 : 정답 (3)

공립 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문제 3. 체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2) 중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1학년에 재학중 체육시간에 달리기 수업을 받던 중 배구 지주

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례에서, 학교가 위치한 곳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학교용지가 좁아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좁은 운동장 내에 배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 중에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사들을 지휘감독하고 물적 시설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으며,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도록 하여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별도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 정답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로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